



지식의 날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7,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삶

김정규 | 기획담당·한양여대 문예창작과 외래교수

《가시철방 위의 너쿨장미》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회 기획 | 박민나 지음 | 308쪽 | 값 11,000원

이 책의 집필 계획서를 처음 훑어본 순간 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으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7, 80년대를 뒤흔들었던 여러 데모 장면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데서 오는 흥분감이었고, 또 하나는 무한경쟁의 과도에 휩쓸리고 있는 3, 40대가 과연 이 과거사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는 회의감이었다.

몇 번의 기획회의를 거쳐 다다른 결론은 “의미와 감동이 있다”였다. 한국 노동운동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잊혀진 전설이 되어 있으므로, 그 복원작업을 통해 가난과 독재의 시대를 관통했던 신념과 용기를 가다듬는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여덟 분은 시대별, 작업장별, 투쟁사안별로 안배하여 선정한 인물들로서, 1978년 동일방직 노조위원장 이충각(현 인천 청솔의 집 관장), 1979년 YH무역 노조 사무국장 박태연(현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982년 원풍모방 노조위원장 정선순(현 서울시의회 의원), 1988년 인천 세창물산 노조위원장 원미정(전 인천광역시의원), 1985년 서울 가리봉전자 노조 사무국장 윤혜련(현 구로샅터 자활후견기관 관장), 1987년 전국노동사목협의회 교육부장 이철순(현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회 대표), 1989년 수미대전기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박성희(현 전국여성노조 마산지부 사무국장), 1994년 대양고무 위장폐업 철회 투쟁에 나선 박신미(현 재능교육교사노조 사무국장) 씨다. 그리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지은이

박민나 씨 또한 로움코리아 노동자로 1985년 구로동맹파업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독재의 탄압 아래 노동자의 권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 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부모의 약값을 벌기 위해,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으로 공장으로 모여들었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투쟁의 길로 들어섰고, 이 땅에 노동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몸을 던져서.

“바로 그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박복례를 비롯해 서남자 조합원 5, 6명이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와 가지고는 짐승들이나 하는 짓을 한 거지. 그걸 조합원들과 간부들한테 뿌려대기만 한 게 아니라 입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통째로 뒤집어씌우기도 하는데,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구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 말문이 막힌다.

“처음엔 그게 똥인지도 몰랐어. 이상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구.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조합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똥을 뿌려대더라니까.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며 섬유 본조에서 나온 놈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악을 써대며 ….”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 양 그는 다시 목이 메고 얼굴을 붉힌다. 동서고금을 다 뒤져도 유례가 없었던 기막힌 똥물 사건은 이렇게 발생하였다. **◆◆**



고래실

고영숙 | 편집부

과학지식을 넘어 과학자들의 열정 속으로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 박용기 지음 | 강미영 그림 | 176쪽 | 값 8,800원

어른이 어린이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태생적인 어려움일까? 어린이 책을 만들 때마다 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인류의 역사를 담은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고민이 많았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등 고대 과학자들이 생각한 우주 이야기/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새로운 이론을 내놓은 과학자들의 이야기/태양계의 행성을 발견한 허셜, 로웰 등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우리 은하 외에도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허블 등에 의해 확립된 새로운 우주관 이야기/빅뱅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적색 거성, 백색 왜성 등 별의 진화 이야기 등 여섯 가지 테마로 나뉘어 있다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주 탐구의 역사를 풀어내다 보니 수많은 과학자들의 생각과 고민, 이론에 대한 소개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애썼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풀이 글을 붙여 두었다. 또 과학이라면 어렵다며 고개를 흔드는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취해 친밀감을 높였다. 그럼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우주 공간을 여행한다는 설정 아래, 궁금한 점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말풍선 속에 담아 이해를 도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은 조금 어렵다. 물론 과학,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는 우주사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체계적인 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이론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천동설과 지동설, 태양계 각 행성들의 크기, 수많은 별들, 유명 과학자들의 이름과 이론 등 단편적인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것만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앞선 시대 과학자들의 이론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드넓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들의 삶을 보여 주는 데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 창에 '우주' 라는 단어 하나만 쳐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낮에는 오르간을 연주하며 가난한 살림을 꾸리고 밤에는 딱딱한 빵을 뜯어 먹어 가며 망원경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관측한 허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회 권력자들에 의해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조르다노 브루노에게서 느낄 수 있는 용기와 감동은 이 책이 던져 주는 가장 멋진 선물이 아닐까. 또한 하늘, 태양, 별 그리고 지구 등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우주와 자연 현상이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롭고도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글**



한국슈바이처

편집부 잠 못들게 했던 옛날이야기,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김학훈 | (주)한국슈바이처 편집장

《우리나라 옛이야기-옛날옛적에》(전 62권, 본책52권, 팔도 전래 8권, 이렇게 읽어오 2권)

장경원 외 지음 | 전병준 외 그림 | 각권 약 36쪽 | 값 698,000원

(주)한국슈바이처에서 펴낸 《우리나라 옛이야기-옛날옛적에 (이하, 옛날옛적에)》는 지난 북경 도서전에서 싱가포르 Pixelpacific사와 저작권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본사가 펴낸 책이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 중국어와 영어로 읽힘으로써 우리 문화를 수출한 문화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안겨준 책이다.

이 전집이 나오기까지 편집부에서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가졌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편집부 직원들을 압박했던 것은 '최악의 출판 불황'이라는 환경에서 과연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이 상품이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표이사(이대철)께서 '한번 해 봅시다!' 라며 편집부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덕에 편집부 직원들은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 글 작가들의 원고 청탁에서부터 그림 작가들의 그림 의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들이 있었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책이 만들어졌다. 《옛날옛적에》를 진행하면서 편집부 직원들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것은 그림 작가와의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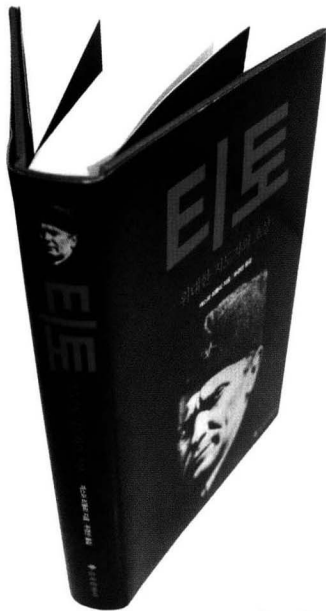
텍스트를 읽고 나서, "아, 이 원고는 ○○○께서 그려 주시면 작품이 나오겠다"고 당사자에게 그림을 청탁했다. 다른 출판사에 비해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작가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마감을 지키지 않는 작가들 때문에 디자인 팀은 사색이 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재미 있는 에피소드일수도 있겠으나, 당시에는 편집부 직원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전집의 속성상 단행본과는 달리

한두 권만 빠져도 출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벼운 술자리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편집자 간의 의사소통의 구실을 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고민, 그림 작가로서 소재와 재료에 대한 고민, 편집자로서의 책이라는 상품의 고민 등을 주고받으며 입장차를 좁혀 갔다.

편집부와 영업부 간 의견 차이가 없지 않았으나,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갔다. 각 부서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인정과 협조,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영업부에서는 편집부 고유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상품에 마케팅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는 기획을 하도록 해주었고, 편집부에서는 상품기획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업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가를 냉정히 생각하게 해주었다.

《옛날옛적에》는 <까르르 깔깔 웃음꽃을 피우는 이야기>, <유래를 알려 주는 이야기>,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 <지혜와 재치가 반짝이는 이야기>, <효와 우애를 일깨우는 이야기>,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는 이야기> 등 7개의 테마로 꾸며졌다. 테마만 보아도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주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맛깔스런 글과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은 아이들에게 책읽기에 대한 습관을 키워 줄 것이다. 2005년에는 기존의 책에 우리나라 문화 이야기를 추가하여 새롭게 출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삶과 지혜, 가치관 등을 알려주어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



을유문화사

권오상 | 을유문화사 편집부장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티토》제스퍼 리들리 지음 | 유경찬 옮김 | 536쪽 | 값 18,000원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 양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좁은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진 것으로도 모자라 혈연과 지연, 학연, 보수와 진보라는 과별에 얽매어 좀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제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국민 모두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는 서글픈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가 막을 내리면서 한 세기를 움직인 인물을 조명해 내는 계획의 일환으로 역사 인물 평전을 기획하게 된 것도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 작으나마 교훈을 얻기 위해서였다.

《티토》를 주목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고민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였다. 1개의 연방, 2개의 언어, 3개의 종교, 4개의 민족, 5개의 국경, 6개의 공화국이라는 말로 대변되던 나라 유고슬라비아. 티토는 이러한 복잡한 지역적 반발을 묵도하면서 국정의 제1순위를 '민족간의 화합'에 두었다. 그는 세르비아계가 다른 민족을 압도함으로써 특정 민족에게 편중되어 기형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관용과 양보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 갈등을 아우르고, 정치적 연대와 극복 과정을 통해 통일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농민인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과 분배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철공소의 막노동꾼으로 일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입대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으면서 러시아 혁명의 광기를 지켜본 경험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티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르티잔'을 이끌고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전쟁 영웅이 되고, 1953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유고는 5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피로 얼룩진 민족 분열과 학살, 내전으로 다시 '발칸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보스니아 내전은 20만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를 내고 인구의 절반을 난민으로 전락시켰으며, 이어진 코소보 내전은 100만 명 이상을 국제 난민으로 내몰았다.

이 책은 '티토'의 어린 시절부터 사망하기까지 그의 가족들, 오랜 지기이자 동료였던 밀로반 질라스를 비롯하여 집권 시절 장관들, 당시 교류가 있던 각국 대사들과 주변 인물들, 세계 여러 언론 등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스탈린과 티토의 연합과 갈등, 처칠을 비롯한 서방 여러 국가들과 티토를 이야기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티토를 단순한 공산주의자나 독재자로 치부하기에 앞서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치 지도자상을 재발견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면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한**